

“초심 잃지 않고 ‘원팀’으로 뭉쳐 지역현안 해결”

제22대 국회 개원... 지역 의원 각오
지역구 주민과 소통 강화·성과 강조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한목소리
AI집적단지 육성 예산 확보 급선무
“전남 국립의대 대승적 차원 접근을”

제22대 국회가 30일 개원했다. ‘호남정
치 복원과 지역발전’을 위해 원팀이 될 것
을 공언하며 당선된 지역 국회의원들을 향
한 지역민의 기대도 그 어느 때보다 크다.
당선인이 아닌 의원으로 본격적인 활동
에 나선 광주·전남 18명의 국회의원들은
의지를 다지며 초심을 잃지 않고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다짐했다.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은 “지역구
주민들과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는 장을 마
련하기 위해 오는 6월8일부터 동천동을
시작으로 ‘국회의원 조인철의 소통사랑
방’을 진행, ‘조인철을 뽑았더니 서구가
달라졌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입기 첫날의 초심을 끝까지
지키는 의원, 말보다 성과로 평가받는 의
원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국립5·18민주묘지를 지역구로 둔 정준
호 의원(광주 북구갑)은 “오월 정신 헌법



제22대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한 광주 국회의원 8인이 30일 광주 서구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당사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정권 재창출을 다짐하고 있다. 나건호 기자

수록에 대한 열기가 가장 뜨거운 요즘, 그
의미와 필요성을 더욱 실감하는 중”이라
며 “최근 2년여간 윤석열 정권 폭정과 검
찰독재로 민주주의는 다시금 위기의 수렁
에 빠졌다. 이런 난세 속에서 광주 시민들
이 불의한 권력에 분연히 맞서 일어났던
것처럼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키
고, 오월 정신 계승을 위해 임기 중 오월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반드시 이뤄내겠

다”고 밝혔다.
유일한 재선인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
을)은 “다른 의원들보다 한 번의 경험이
더 있는 만큼 잘 이끌며 함께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며 “빨리 가야 하
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
을 새겨왔다. 광주 지역 국회의원 8명이
모두 함께 한 마음으로 뭉쳐 연대, 협력하
며 시민들의 명령을 받들겠다”고 말했다.

광주지역 국회의원 8명은 이날 기자회견
을 통해 “광주는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
이 산적해 있다”며 “제21대 국회 때보다
더욱 분발해 ‘원팀’ 정신으로 당면한 지역
현안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전남 동부권의 유일한 재선의원인 주철
현 의원(여수갑)은 “지난 총선 결과로 확
인된 민의를 받아들여 윤석열 대통령이 거
부권을 남용한 법안들을 재발의하고 범야

권이 뿔뿔 뭉쳐 관철시키겠다”며 “여수를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대표하는 해양관
광도시로 만들고, 전남동부권 시대를 활
짝 열어 전남 전체가 두루 발전할 수 있도
록 앞장서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5·18 헌법 전문 수록, 인공지능(AI)집
적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전남 국립의대 신설 등 지역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제22대 지역 국
회의원들의 역할도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
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인공지능(AI)집적단지 육성에 관한 특
특별법 제정의 경우 산자위 법안소위 회부
이후 진전을 보이지 못하며 4년째 제자리
걸음 중이다. 심지어 2024년 지방재정협
의회에서 관련 사업 예산 확보가 ‘수용 곤
란’ 판단을 받아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남의 경우 ‘전남 국립의대 신설’이 주
요 현안으로 떠올랐으나, 유치 지역을 놓
고 순천과 목포가 대립하면서 ‘동서갈등’
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이에 각자의 지역
구도 중요하나 전남 발전을 위해 소지역
주의에 매몰되지 않고 대승적인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오지현·정성현 기자

제15회 광주비엔날레 ‘판소리, 모두의 울림’ D-100

9월 7일 본전시·양림동 광파르
니콜라 부리오 예술감독 필두
30개국 73명 작가 동시대 미술
지금 할인 가격 사전예매 가능

창설 30주년에 열리는 제15회 광주비
엔날레 개막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제15회 광주비엔날레 ‘판소리, 모두의 울

림’은 오는 9월 7일부터 12월 1일까지 86
일간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을 비롯해 양림
동 일대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에는 세계적 명성의 니콜라
부리오 예술감독과 함께 30개국 73명의
작가가 참여, ‘판소리’를 매개로 기후위기
·서식지 파괴·분쟁 등 일련의 사건이 벌어
지는 전 지구적 공간을 탐구한다.

먼저 본관 전시는 △부딪침소리
(Larsen effect) △겹침소리(Polyph-

ony) △처음소리(Primordial sound)
3개 섹션으로 구성된다. 각 섹션이 뜻하
는 성격에 따라, 동시대 인류세 문제와 지
속가능한 가치 등을 탐구한 다양한 작업
이 펼쳐진다.

양림동은 장외 섹션이다. 옛 파출소와
빈집 등 일상생활 속 장소에 여러 작업을
설치함으로써 공존과 연대의 가능성을 시
사한다.

또 양림동에 있는 포도나무 아트스페이

스, 한부철 갤러리, 한희원 미술관, 양림
샬롱,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 등이 전
시 공간으로 활용된다. 국외 유수 문화예
술기관이 참여하는 광주비엔날레 파빌리
온(국가관)도 역대 최대 규모인 27개국
이 참여해 광주 전역의 주요 미술관 등에
서 이어진다.

(재)광주비엔날레는 개막 D-100을 기
념, 지난 29일 시민들과 함께 한 ‘마당 스
캐치북’ 그림 대회를 진행했다.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앞 ‘마당’에 모인
200여명 참가자는 ‘판소리, 모두의 울
림’과 연결되는 ‘기후위기’를 주제로 ‘마
당’ 캔버스에 분필로 자유롭게 그림을 그

렸다.
제15회 광주비엔날레 입장권 예매 시
작일인 지난 25일에는 제59회 광주시민
의 날 무대에서 제1호 입장권 전달식이 열
렸다.

제1호 입장권은 패션, 뷰티, 라이프 스타
일 분야에서 새로운 트렌드를 이끄는 크
리에이티브 콘텐츠 기업 에스팀그룹의
김소연 대표가 구매했다.

광주비엔날레 사전예매 입장권은 오는
9월 6일까지 인터파크에서 할인된 가격
으로 구매할 수 있다. △어른 1만5000원
△청소년 7000원 △어린이 4000원이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2024 목포 바다살리기 실천대회

•일시 2024년 5월31일(금) 오후 2시

•장소 영암금호방조제 해안가 및 삼호소형어선 물양장

지구 생물의 80%가 살고 있는 바다는 무한한 자원을 품은 생명의 요람입니다.

하지만 문명의 발달과 함께 급속한 산업화로 해양오염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인류의 생존과 미래를 위해 청정 바다를 지킬 수 있는 생태 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한 발전 모색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살아 숨쉬는 청정 전남 바다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어민들, 바다와 접해 있는 자치단체와 정부기관은 물론 모든 사람이 바다살리기에 행동으로 나서야 합니다.